

'2024년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 성대히 개최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제10회 한중 인문학 포럼 기조연설



안동 능곡회(陵谷會)가 주최하는 '2024년 능곡회 송년의 밤' 행사가 12월 13일 저녁 6시 30분 안동파크호텔 2층 페퍼민트 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 권철환 안동중추회장이 참석,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권광택 능곡회장 부부, 능곡회원 및 부인회원, 권오직 능우회장 및 능우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송년의 밤 분위기를 북돋우기 위해 남녀 9명으로 구성된 '고고장구 팀'이 출연, 장구를 치면서 연주하다가 다시 '청춘열차' 등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다.

권진업 사무국장의 사회에 따라 진행된 이날 1부 행사는 권태형 능곡회 직전회장이 개회선언에 이어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상음례, 감사패 및 우수회원 패 전달, 회장인사, 축사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광택 회장은 능우회를 대표해서 권오직 능우회장에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능우회원에게 양말 두 켤레씩 전달해 달라며 양말을 전했다. 이어 권광택 회장은 능곡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권영건 안동권씨중추회 부회장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또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능곡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권순욱, 권희창 두 회원에게 우수회원 패와 꽃다발을, 분과 전원이 유대강화 하여 능곡회 발전에 공이 큰 제2, 3 부과에게 분과 상과 부상으로 상금 20만원씩 각각 전달했다.

이 외에도 권오환(35세. 부정공파, 에스알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우창(38세. 정조공파, 대박스카이 대표) 등 신입회원 2명에게 회원 장 및 꽃다발을 그리고 배지를 가슴에 달아 주고 능곡회에 입회시켰다.

이어 배하나 초청가수가 등장, '미운사내', '환희' 등 여러 곡의 노래를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권광택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능곡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입회원 2명을 가입시키고 회원 친목도모를 위해 분과별로 경쟁을 시켜 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직 능우회장은 축사에서 "능곡회가 안동권문의 중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지난번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가 안동에서 개최하였을 때 능곡회의 단합된 힘을 과시, 전국에서 참석한 안동권씨한테 능곡회의 힘을 보여 주었다"며 회고했다.

권철환 회장은 축사에서 "능곡회는 안동권씨의 보배이고 재산 1호이며 가장 큰 보배가 능곡회"라며 칭찬했다. 그는 "오늘날 능곡회를 이같이 키운 것은 능우회이며 능우회도 좋은 일과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칭찬했다. 축사가 끝나자 행사장에서 2024년 능곡회 송년의 밤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능곡회원 과 능우회원이 합동으로 단체 기념촬영을 하였다.

현재 능곡회원은 총 113명, 능우회원은 36명이 각자 맡은 일에 책임을 다 하고 있다.

2부 만찬 행사는 뷔페 식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철환 회장, 권영건 초대 능우회장, 권태형 능곡회 직전회장 등 3명이 돌아가면서 건배제를 하면서 분위기를 돋웠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안동 간고 들어 한 손씩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영건 부도부장



제10회 한중 인문학 포럼이 지난 2024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한중 인문학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한중인문학포럼은 한국과 중국의 인문학자 상호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2014년 개최하기 시작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차관 오석환,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홍원화, 중국 사회과학원국제협력국 부국장 오웨이,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문학의 역할을 '공존의 인문학', '인문학적 이해 증진을 통한 교류의 확대', '디지털시대의 한국과 중국의 사회과학 변화와 새로운 도전', '지속가능한발전과 인문사회과학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발표

와 토론을 이어 갔다.

특히 이 자리에는 본보 편집위원인 중앙대 명예교수 권중달 교수가 '문명의 발전과 한중인문학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하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우수한 두뇌를 소유하여 문명을 발전시켜 왔으나, 그 문명은 도구의 발전이며, 이 도구는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좋게도 나쁘게도 이용될 소지를 가졌다고 전제하고 말을 시작하였다.

이어 '여기에서 문명 도구의 인간을 위한 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인문학이 나타났고, 이 인문학은 정치지도자들에게 인간을 위하여 도구 문명을 사용하도록 지도하려고 하였다. 일부분은 이러한 지도가 성공하였지만, 인문학이 주목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학자들들이 그 본분을 실천하기보다는 스스로 권력을 아부하거나 권력을 가지려는 인문학의 타락과 실패를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의 전쟁이 전 세계를 휩쓰는 상황에서 다시금 권력자를 지도할 인문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 되는 시기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많은 청중으로부터 공감과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다. 권중달 중앙대 명예교수

제44차 안동권씨 광주 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제44차 안동권씨 광주 종친회 정기총회가 12월 21일(토요일) 광주시내에 위치한 미식정에서 개최되었다. 종친들은 광주 종친회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는 송년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위촉장 및 임명장 수여, 회장 인사, 회무 보고, 재무 보고, 감사 보고, 권문의 자랑, 폐회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히 신입 정장년 회장으로 권영덕(34

세) 종친이 선출되었다. 신입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내년 영주에서 개최되는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체육대회에 참가를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광주종친회는 지난 2년간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불참을 깨고 반드시 내년 영주 체육대회에는 참가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2부에서는 식사와 함께 회원끼리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권영덕 광주종친회장

동정

▲ 권기현 경기대학교 시컴퓨터공학부 교수가 12월 6일 코엑스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의 '오픈소스 페스티벌 2024'에서 'SW안

전 산업발전 개인 부문 유공자'로 선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교수는 다수의 국제 기능 안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SW안전 관련 연구개발, 정책 수립, 강연 및 언론 기고, 인력양성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금년 7월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권오갑 HD현대 회장이 모교 한국의국어대에 발전기금 2억원을 기부했다. 한국의국대는 권 회장의 후학양성을 위한 나눔의 뜻을 기리고자 대학본부 1층 '명

예의 전당'에 권 회장의 동판을 제작, 헌액코 했다. 권 회장은 HD현대의 CEO이자 프로축구 K리그의 수장으로 평소 선한 영향력과 나눔을 실천해 오며 2011년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 각자의 급여에서 1%를 기부하는 'HD현대1% 나눔재단'을 출범시켰고, 최근연 사재를 출연해 조선소 중대 재해 피해 유가족을 지원하는 'HD현대희망재단'을 설립한 바 있다.

▲ 권미진 애그테크 기업 '애그유니(AgUni)' 대표가 틱스(TIPS) 유공 표창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틱스(TIPS)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운영사가 민간의 전문성 및 역량을 활용해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정부 R&D 및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국내 최대 액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이다. 권미진 애그유니 대표는 틱스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과 지역 확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다.

▲ 권순용 목사가 11월 27일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42대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권 목사는 취임감사에배에서 한국교회 연합과 부흥에 앞장설 것

을 다짐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와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차별금지법 등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장로교 신학에 근거한 치유와 회복 운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순용 목사는 1992년도에 서울에서 새송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2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주다산교회 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 권순성(權純成, 추밀공파 37세)군이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수시전형에 합격했다. 세종과학영재고등학교 재학 중인 권순성군은 권오협 문충공 회장의

손자이다. 권오협(權五協, 35세) 회장의 아들이자 순성군의 아버지 권기석(權奇錫, 36세)씨는 2000년 제4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들어선 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사로 재직 중이다. 권기석 이사관의 할아버지 권영각(權寧珪, 34세) 전 충주향교 전교는 22년 동안 문충공 종중 회장을 역임했다. 권오협 회장은 부친의 뒤를 이어 현재 문충공 종중 회장을 맡아 종중의 화합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2대에 걸친 송조정신의 실천이다. 안동권씨 충주종친회장 장 총주향교 총무수석 장의도 겸하고 있다. 직선지가 필요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라고 했다가 아들과 손자가 가문과 안동권문을 빛낼 뿐 아니라 국가의 동량으로 성장했다.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정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2월 26일 국회의 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에서 보건복지 광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권 위원장은 행정정보복지위원회로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을 발의하여 의료 접근성 개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증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광택 위원장은 현재 능곡회 회장이다.

謹賀新年



협의회장 권태호(충청북도 회장)

고 문 권길상(협의회 초대, 2대회장. 부산), 권동술(협의회 3대 회장. 합천), 권영호(협의회 4대 회장. 부산)

부 회장 권영태(영등포회장), 권영복(서울지역회장), 권영현(부산회장), 권오섭(대구회장), 권대주(광주회장), 권용기(대전회장), 권이수(전주완주회장), 권용준(안양회장), 권혁소(시흥회장), 권종희(상주회장), 권병기(이령회장), 권오홍(경산회장)

감 사 권오협(충주회장), 권순구(원주회장)

간 사 권철환(안동회장)

권순철 강릉회장	권오수 마·창·진회장	권병후 수원회장	권영희 영양회장	권병기 의령회장	권병섭 청송회장
권오홍 경산회장	권영복 서울지역회장	권준표 순천회장	권중수 영주회장	권오덕 의성회장	권기택 청주회장
권혁용 경주회장	권태갑 문경회장	권혁소 시흥회장	권호락 영천회장	권이수 전주·완주회장	권태호 충북도회장
권대주 광주회장	권영근 밀양회장	권태훈 아산회장	권오영 예산회장	권재원 정읍회장	권오협 충주회장
권영화 구미회장	권양호 봉화회장	권철환 안동회장	권태원 예천회장	권인창 제주회장	권혁수 칠곡회장
권경관 금산회장	권영현 부산회장	권용준 안양회장	권영국 옥천회장	권득상 제천회장	권용구 태안회장
권오민 김포회장	권순주 부천회장	권용만 양평회장	권희성 온양회장	권천문 서울중구회장	권순종 통영회장
권대영 서울금천회장	권오식 분당회장	권경현 여수회장	권영순 용인회장	권영목 서울중랑회장	권봉정 포항회장
권순욱 단양회장	권병국 산청회장	권혁산 여주회장	권현기 울산회장	권성업 증평회장	권종관 하동회장
권공식 담양회장	권종희 상주회장	권영로 연천회장	권순구 원주회장	권재덕 진주회장	권상기 함양회장
권오섭 대구회장	권상용 서남권회장	권두찬 영덕회장	권병택 음성회장	권오섭 진천회장	권영록 합천회장
권용기 대전회장	권주석 서천회장	권영하 서울영등포회장	권석중 익산회장	권광규 창녕회장	권병규 횡성회장

*순서는 지역명 가나다 순입니다.

안동권씨 전국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태호